

다자녀의 부모로 살아가기

: 세 자녀 부모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역할 형성

Construction of Thoughts and Roles of Parents with Multiple Children

권 영 인(Youngin Kwon)¹, 최 지 은(Jieun Choi)^{2*}

¹Human Life Research Center, Symbiotic Life-TECH, Yonsei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verse points of view to understand the low fertility issue of Korean society. For th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married couples(28 persons) all raising three children.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overall family and work life, child care role performance, thoughts about child rearing, and their sociocultural context. Interview data were explored based on 6 analyzing steps offered by S, J, Talyor and R. Bogdan(1984). Most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formed positive perceptions about having three children. Parents' positive percep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their attitude of not worrying too much about their children's future as well as child caring contexts around them. Parents' perception about having three children was also linked with their child care role construction process. In detail, parents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s tended to increase their level of child care involvement. This was particularly true for fathers. Mother and father's job situ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to shape their child care involvement. In addition, child care attitude of people around them explained father's child care involvement. Applying these qualitative results, we first expect to provide detailed ideas about lives with three children in Korea. Second, based on our study findings, a more realistic and helpful policy to help the low fertility problem could be developed. Lastly, we also hope to provide helpful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about low fertility issues of Korea.

▲주제어(Key words): 고출산(high fertility), 다자녀(multiple children), 양육에 대한 생각(thoughts about child rearing), 양육 역할 형성(caregiving role decision),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methods), 현상학(phenomenology)

I. 서론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지 않은, 색다른 관심을 받는 일이 되었다(H. Lee, 2011). 1960년대에 6.0명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산업화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으로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였다. 1983년에는 2.1명 이하로 떨어져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S. Chung, 2009), 2001년 합계출산율¹⁾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Statistics Korea,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358-2011-1-C00001]

* Corresponding Author : Ji Eun Choi,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137-863, Korea, Tel: +82-10-8383-8285, E-mail: cjevex@hanmail.net

1) 가입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

201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십 수 년 째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인구 및 총인구의 감소 등 본격적인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복지,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과 이와 맞물린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주목받으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되었다. 2006년 마련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과 이것이 발전된 2010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에 따라 정부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편성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9년 동안 총 약 66조 원에 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은 아이를 적게 낳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출산 의지가 생기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10년제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방향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고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의 다양한 실재를 질적접근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향의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II. 선행 연구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Y. Na and M. Kim(2010)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저출산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179편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저출산 연구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주제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42.9%로 가장 많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25.7%,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연구가 22.9%로 나타났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8.6%를 차지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 대상 역시 '정책'이 가장 많았다. 즉, 지금까지 행해져 온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연구가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춰 온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접근은 대표적으로 인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뉜다. Y. Lee and J. Kim(2009)은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구학적 요인(결혼연령 상승, 혼인 감소, 이혼 증가), 경제학적 요인(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 자녀양육비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곤란), 사회학적 요인(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세 가지를 들었다. S. Sohn(2005)은 여기에 '성불평등 요인'을 추가하였다. H. Chang(2007)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 미친 다섯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심리적 혜택의 감소, 자녀로 인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증가, 경제여건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라이프스타일에서 개인주의 가치관 증대, 양성평등적이지 못한 사회규범의 지속을 지적했다. 한편, Y. Song과 J. Lee(2011)은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 측면(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 제도적 측면(가부장제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음), 경제적 측면(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방안으로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진산업사회에서 출산력이 매우 낮은 것은 상이한 사회제도에 적용되는 양성평등 수준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여성들이 교육, 고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만 이러한 기회들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H. Chang; 2007; S. Chung, 2009; G. Yoo, 2009), 보다 성평등한 사회의 출산력이 잘 유지된다는 경험적 증거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게 지적된

다(Y. Song & J. Lee, 2011).

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 역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경제적 요인(S. Y. Lee, 2006; C. Oh & S. Choi, 2012; Y. Oh & S. Park, 2008), 가치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S. S. Lee, 2006; H. Shin & E. Bang, 2009),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요인(S. Kim, 2009)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M. Cho, 2010; H. Joo, K. Gwak, & J. Cho, 2010; Y. Kwon, 2014; M. Lee, 2010).

저출산의 경제학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주로 국가적인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혼여성의 선택을 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 Y. Oh와 S. Park(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진 것과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요건이 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C. Oh와 S. Choi(2012)은 초혼연령의 상승이 저출산과 직결된다는 가정 하에 외환위기 이후 특히 남성의 고용불안정성, 주택마련비용의 상승, 실업 증가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밝힌 연구들은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회변화 추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I. Berninger, B. Weiß와 M. Wagner(2011)의 연구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출산 의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달리 남성은 소득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 출산 의지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역시 존재했다.

T. Kim(2005)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 및 사회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들에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과거의 보편적 가치관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의 비율도 1997년 74%에서 2005년 44%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N. Cho, 1997; S. Kim et al., 2012). 또한, 기혼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그들의 실제 자녀수나 기대 자녀수와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S. S. Lee, 2006). 예컨대, 자녀가 한 명 이하인 저출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탐색한 S. Sohn(2005)은 이들이 자녀를 물질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낄 만큼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이유를 성역할 가치관의 혼란에서 찾고자하는 시도 또한 찾아 볼 수 있는데, H. Cho와 H. Bang(2005)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점차 고정관념적 성역할이 약화되는 반면, 가정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이 저출산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결혼이나 출산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의 해결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 가정에서의 평등적인 성역할태도의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등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저출산 국가 중 최근 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국가의 경우 젊고 고학력인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과 가사 참여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O. Sullivan, F. C. Billari, & E. Altintas, 2014), 가정 내의 보다 평등한 성별 관계의 확산이 출산을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연구 방향이 다양해져 여러 가족 발달 단계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향후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할 미혼 성인 남녀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미래 예상 자녀수를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J. Chang, 2005; M. Kim & Y. Song, 2012; H. Kwon et al., 2011; Y. Kwon, 2013; K. Lee, S. Jung, J. Park, & Y. Shin 2009; S. Sohn & E. Kim, 2010),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출산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H. Kwon et al., 2011) 여자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보다 출산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태도가 덜 전통적인 동시에 자녀양육 부담을 훨씬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S. Sohn & E. Kim, 2010). 또한, 미혼남녀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양육비용을 크게 예상하였으며(K. Lee et al., 2009),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J. Chang, 2005; M. Um & H. Kim, 2011).

2. 다자녀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자녀 혹은 한 자녀를 둔 저출산 집단과 앞으로 출산 결정을 내려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향과 더불어 저출산이 만연한 세대 속에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경험과 생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나 무자녀 혹은 한 자녀 부부들이 꼽은 출산을 꺼리는 이유, 혹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다자녀를 키우는 삶에 대한 막연한 예상 및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교육·양육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기초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언론에서 때때로 보도되는 '자녀 1명 당 양육비가 수억 원이 든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은 출산 결정을 앞둔 예비부모들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하다. 2013년에는 자녀 1명을 대학졸업 시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이 넘고 월 평균 양육비가 119만원이라는 보도가 화제를 낳았다(S. Kim, 2013. 4. 11.).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사교육비가 20%, 대학교 4년의 비용이 25%를 차지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막연하게 자녀를 여러명 키우려면 곱절의 양육비가 든다고 겁먹기 쉽다. 따라서 예비 부모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를 여러 명 양육하고 있는 부부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주목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출산' 부모의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E. Bang, 2014; H. Lee, 2011; Y. Lee & K. Lee, 2012; C. Lim, 2011; S. Moon, J. Yang, & S. Lee, 2007; J. Yum, S. Chung, & Y. Joo, 2013).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대체율(E. Bang, 2014), 혹은 한국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S. Moon et al., 2007)를 기준으로 세 자녀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의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다자녀를 가진 동기, 다자녀 양육의 장점과 단점, 다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요구 및 실제 정책 이용 경험,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사회 변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계획 하에 다자녀를 갖기보다는 막내 자녀를 우연히 임신하게 된 비의도적, 무계획적 출산에 해당하였다. C. Lim(2011), S. Moo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피임을 했으나 실패하여 당황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막내 자녀의 존재를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한 반면, 시어머니의 강요나 스스로의 스트레스로 대를 잇기 위해 의무적으로 출산한 일부 사례는 이후에도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였다(S. Moon et al., 2007). J. Yum et al.(2013)은 다자녀를 원했는지와 성별 선호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실제 자녀 수보다 이상적으로 여기는 자녀 수가 더

적은, 즉 다자녀를 원하지 않은 가정이 다자녀를 위한 가정보다 더 많았다. 성별 선호 없이 다자녀를 위한 가정은 자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 다자녀를 원치 않았던 가정은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인해 당황하고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 E. Bang(201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자녀 동기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다자녀를 갖게 된 동기로 '아이를 좋아해서'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지만,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어서',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

많은 연구에서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비교적 크게 인지하며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E. Bang, 2014; H. Lee, 2011; C. Lim, 2011). 다자녀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끼리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낼 때 셋 이상 낳기를 잘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언제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양육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40%를 차지했다(E. Bang, 2014). 다자녀 부모의 양육 경험 중 가장 큰 장점으로 양육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여유롭고 편안해졌다는 점과,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는 등 개인적·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보고된다(E. Bang, 2014; H. Lee, 2011; C. Lim, 2011; S. Moon et al., 2007). 또한,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H. Lee, 2011; C. Lim, 2011; S. Moon et al., 2007). 부모 모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부부 간의 정서적·신체적 친밀감과 유대의식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는 점도 다자녀 가정의 강점 중 하나이다(C. Lim, 2011). 반면에,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양육의 버거움이나 아이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주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E. Bang, 2014), 주위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H. Lee, 2011; Y. Lee & K. Lee, 2012),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E. Bang, 2014; S. Sohn, 2005)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양한 대안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E. Bang, 2014; Y. Lee & K. Lee, 2012; J. Yum et al., 2013). 예를 들어 J. Yum et al.(2013)의 연구에서 다자녀 부모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다자녀 관련 지원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며 획일적인 자격조건을 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부모

들은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높은 교육비·양육비가 다자녀 양육의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개선되고 지나치게 경쟁 중심인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기를 희망하였다(Y. Lee & K. Lee, 2012; J. Yum et al., 2013). E. Bang(2014)의 연구에서도 역시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부모가 가장 많았고, 부모가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두 번째로 많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특히 아버지들에게서 많이 제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단편적으로 조사하는데 집중 했을 뿐, 보다 심층적으로 다자녀가 되는 과정이나 그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 역할 및 관계의 변화 등을 포함한 가족생활의 역동적인 측면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다각적인 이해라는 목적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동기나 현재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한 자녀부터 다자녀를 양육 할 때까지 부모가 경험하는 생활과 가치 및 태도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특히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아버지 역할(R. LaRossa & D. C. Reitzes, 1993; W. Marsigilo, 1993; S. Yasumoto & R. LaRossa, 2000) 및 어머니 역할(J. Park & Y. Kwon, 2009)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부모 역할에 있어서의 믿음, 철학, 생각 등의 인식적 측면과 실제로 나타나는 양육적 행동이 맥락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두 측면의 관련성을 맥락과 연계시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적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을 연구한 LaRossa and Reitzes(1993)는 남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나 믿음, 생각 등의 인지적 측면이 실제 행동적인 측면에 비해 사회 변화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며, 인식과 행동 간에 간극이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 역할에 있어서 인식과 행동의 간극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맥락의 변화 속도가 빠르거나 가족 친화적 문화의 발달이 더딘 경우 더욱 커진다고 알려져 왔다(Y. Kwon & K. Roy, 200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에 대한 결정 역시 사회 경제적인 맥락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다자녀 양육 경험을 고찰함에 있어서 자녀 양육

에 대한 믿음, 가치 등을 포함한 생각과 실제적인 양육 행동을 구분하여 고찰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맥락적 요인과 함께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변화해 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고출산 관련 연구가 어머니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H. Lee, 2011; Y. Lee & K. Lee, 2012; S. Moon et al., 2007)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이나 아버지의 시각에서 본 다자녀 양육 경험, 혹은 부부(pair) 중심의 가족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체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라는 단순한 사실을 감안하면, 다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을 고찰할 때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신념이나 행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규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으며(B. A. McBride et al., 2005; S. J. Schoppe-Sullivan, G. L. Brown, E. A. Cannon, S. C. Mangelsdorf, & M. S. Sokolowski, 2008),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J. Kim & Y. Kim, 2008), 아버지의 양육과 가사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이(J. Kim & J. Lee, 2005)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증명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단위로 연구에 포함하여 자녀 수 증가와 더불어 재구성되는 그들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양육에 있어서의 역할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다각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 및 선행연구에서의 지배적인 접근 방향과는 다르게 고출산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및 실제적 양육 역할 구성을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 2>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실제적 자녀 양육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 3>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실제적 역할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은유적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방법의 활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세 명의 “다자녀”를 둔 부부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맥락에서 계량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기존의 저출산 연구의 패러다임과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출산 및 양육을 “수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가치”로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Y. Na & M. Kim, 2010; S. Sohn, 2005).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다자녀 양육의 경험, 느낌, 해석, 견해, 동기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는 수집 가능한 형태로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지나 척도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I. Kim, 2011). 따라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창출해 내는 질적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겠다. 특히,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삶의 경험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참여자가 이해하고 구성하는 경험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학적 연구(J. W. Creswell, 2013)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19세기 말 철학자 Edmund Husserl(1859-1938)이 물체, 행위, 사건이 행위자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발전된 철학의 한 부류이다(K. J. Daly, 2007). 현상학적 연구의 초점은 현상이며, 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자세히 탐색하는 것이다(A. Giorgi & B. Giorgi, 2008). 현상학적 분석의 시작은 세상을 참여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제공하는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인데,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생생한, 매일의 일상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이다(S. Kvale, 1996). 이 과정에서 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적인 현실(taken-for-granted aspects of everyday reality)을 심도 있게 파고든다(K. J. Daly, 2007).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의 철학을 반영하여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삶의 경험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

여,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대상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부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부부가 다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형성하여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족 내 양육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다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지지체계나 사회적 시선 등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다 거시적인 환경맥락과 관련된 경험이나 관념은 어떠한지, 이것들과 관련된 개인의 만족 수준이나 기대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폭넓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부 14쌍으로 총 28명이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 영유아 시기에 양육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고 부모의 일-가족 조정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 명 이상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 14쌍(28명)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34세에서 4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남성 평균 41.29세, 여성 평균 39.29세), 결혼 기간은 6년부터 15년까지(평균 11.78년)에 걸쳐 나타났다. 모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자녀 간 연령차와 성별 구성 등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우선, 세 자녀 모두 아들이거나 딸인 부부가 4쌍이었으며, 아래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와 늦둥이 막내자녀를 입양한 경우가 1쌍씩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와 셋째의 나이 터울은 가장 적은 경우가 3살이었지만, 연구 대상 중 늦둥이 자녀를 가진 부모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장 터울이 많이 지는 경우가 13살로 나타났다. 직업 상황 역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현재 부부 모두 전일제 취업 상태인 맞벌이 부부가 2쌍에 불과했으며, 남편이 전일제, 부인이 시간제로 취업 중이거나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가 2쌍이었다. 남편이 전일제 취업 중이고 부인이 전업으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8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2쌍의 경우 부인이 취업했으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었다. 이와 반대로, 부인이 전일제 취업 중이며 남편이 전업으로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는 부부가 1쌍 있었으며, 남편과 부인 모두 과외 등 시간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1쌍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ID ¹⁾	Age	Year of marriage	Age & gender of children ²⁾	Job	Overall characteristics
1H	41	2002	12S-6S-3S	House husband	Grandma had taken care of their first child. 1H decided to stay home and be in charge of household labor and child care when they had their second child.
1W	40			office worker	
2H	37	2007	6S-5D-3D	office worker	It has not been so long since they moved out of 2H's parents house. 2W went back to work after using few years of parental leave.
2W	36			office worker	
3H	43	2000	11D-7D-4D	professional	3H is a judge and even work during the weekend. 3W is a school teacher and currently using a parental leave for 6 years. They have recently joined in a parent- cooperating child care institution.
3W	42			Job leave	
4H	40	2003	7S-6S-4S	professional	Although child care is very hard since their first and third child is only 3 years apart, 4H is actively taking a lot of child care duties. They are a part of parent- cooperating child care institution, and having a intimate relationship with other parents.
4W	40			House wife	
5H	41	2002	12D-8D-4S	office worker	Since each child is 4 years apart, they have to take care of childre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live closely with other parents around them.
5W	40			House wife	
6H	37	2008	6S-4S-2D	part-time	6H quitted his full-time position after the second child was born in order to concentrate on child care. Both 6H and 6W are now working part-time. They value a life within a community
6W	37			part-time	
7H	41	2001	13S-10D-1D	office worker	After raising two children, they adopted the third child due to their church members' recommendation. 7H works for a family-friendly foreign company. Two older children are in an alternative school.
7W	37			House wife	
8H	43	2001	13S-11S-1D	office worker	Although living with 8H's mother, 8W is in charge of all the household labor and most of child care duties. 8H is not participating in child care.
8W	42			House wife	
9H	41	2002	10D-8S-7S	professional	9H is a paster and need to work during weekends as well as workdays. However, working hours are flexibile. 9W is a doctoral student. 9H's parents live nearby to support them.
9W	34			Student	
10H	45	2000	13D-10D-5D	professional	10H and 10W are both middle school teachers. Their first child lived with 10W's mother when she was a baby. Due to his leisure activities, 10H rarely participates in child care or household labor.
10W	43			professional	
11H	42	1999	14S-13S-11monthD	personal business	11W in her parental leave period for one year. When 11W was working full time, 11H was doing equal amount of child care work. However, 11W is now fully in charge of household labor and child care. They are concerning much about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11W	42			Job leave	
12H	43	2001	12D-7S, D (twins)	office worker	Due to his enormously long working hours, 12H cannot participate in family life at all. Although they are financially secure, 12W feels that they are financially lagging compare to other rich people.
12W	39			House wife	
13H	43	2001	13D-10S-3D	personal business	They own a mid-size market near their house. 13H is responsible for running a market and 13W is full time housewife. They had marital conflict before the third child was born. Their relationship got better after 13W took a series of counseling. There is a week boundary between the work place and home since all family members are staying together in the market during weekends.
13W	37			House wife	
14H	41	2004	11D-10D-6S	office worker	Although 14H enjoys time with children, he moved to a hard working company when the third child was born due to make their financial situation more secure. They can only stay together on Sunday at church.
14W	41			part-time	

1) H means Husband, W means Wife

2) S means Son, D means Daughter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행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주로 연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목적표집(purposive sam-

pling)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소개자 (gatekeeper)를 통해 예비 참여자에게 간략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게 한 뒤 연구 참여 의사를 보인 사람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 연락을 하여 면접 일정을 잡았다. 또한, 면접 참여자에게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추천 받아

표집 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면접은 참여자에게 익숙한 생활 터전인 자택이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동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접 내용을 디지털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면접은 기존의 연구와 여러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식(sensitizing concept)들을 기반으로 마련된 반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가족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정 후 사용하였다. 질문에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및 이들의 관계,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변 환경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면접 내용은 자세히 전사(transcribe)되어 A4용지 약 400장 분량의 전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사 자료는 S. J. Talyor와 R. Bogdan(1984)이 제시한 6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를 읽고 충분히 숙지하는 단계로(read & re-read), 이 단계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맥락을 충분히 친숙하게 이해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생각(hunch & idea)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용 및 단어에 반복적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며 분석할 개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 분석 초기 단계에서 고려된 개념은 약 180개로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움”, “아이들이 주는 만족감”, “근무시간이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함”, “어머니의 육아휴직”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발견된 초기 개념들을 기초로 계속적인 개념화를 진행하고 새로 발견되는(emerging) 개념을 포착하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예상되던 개념(예. 일-가족, 유입, 경제적 어려움, 비계획적 임신, 육아 부담) 외에도 “아버지 역할 증가”,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 “자발적 세 자녀 양육”, “덜 걱정하는 부모의 태도” 등의 개념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상의 처음 세 단계는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을 분류하여 유형화(categorizing) 하는 것으로, 육아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육아 행동을 어머니가 대부분의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 육아 행동”과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등한 육아 행동”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부모의 일에 관련된 개념들도 이 단계에서 “육아에 지지적인 맥락”과 “육아에 방해가 되는 맥락”으로 유형화되었다. 다섯 번째는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나 제안(theoretical proposition)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 유형화 된 다자

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양육 역할이 상호 연관되는 과정을 찾으려 시도 하였으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직업적, 환경적 맥락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전체 개념들을 다시 풀어 분석 결과를 도표나 은유적인 그림, 도식 등을 사용하여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적 형상화는 연구의 개념과 개념들의 전체적 관계와 흐름 및 내재된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질적연구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체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

질적연구에서 독자를 설득시키고, 연구자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Y. Lincoln & E. Guba, 1985; D. M. Mertens, 1998).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지세한 현장노트를 기록함으로써 믿을만한 자료를 모으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동떨어진 특성을 보이는 부적 사례(negative case)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들의 다름의 이유와 그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진 이외의 연구자에게 발견된 개념이나 유형화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작업을 거쳤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인터뷰 마지막에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이나 주의사항, 제외했으면 하는 부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인터뷰 분석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member check). 마지막으로 인터뷰와 현장노트, 관찰 자료 등을 결합하여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삼각화(triangulation) 절차를 거쳤다.

IV. 연구결과

1.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형성의 이해

본 장에서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개념들과 개념들의 유형을 중심으로 세 자녀를 둔 부모가 다자녀 양육에 대하여 갖게 되는 긍정적 생각 및 어려움을 탐색하

고 이와 연관되어 도출된 맥락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의 형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4쌍(28명)의 부부 중 중 셋째를 입양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다자녀 양육을 선택하거나 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경우는 단 3쌍에 불과했다. 반면에 대부분이 다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셋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자녀의 부모가 되게 된 느낌을 “당황”, “걱정”, “얼떨떨함”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 아버지는 셋째를 가졌을 때 처음으로 “셋, 아 이거 돈 어떻게 하지? 먹고 살려면 이거 어떻게 하지? (1H)”하는 경제적 걱정이 들었다고 표현하였으며, 둘째 자녀와 연년생으로 셋째를 갖게 된 한 어머니는 “약간, 얼떨떨했어요. 가질 타이밍도 아니었고 정말 가졌나? (4W)”하고 믿을 수 없었던 당시 느낌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다자녀를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부분 셋째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셋째에 대한 중절 수술까지 권유 받았다고 하는 한 어머니는 다자녀를 “인정”한 후에 일부러 즐겁게 지내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여보, 나는 나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냥 낳을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몇 번을 고민하고 며칠에 걸쳐서 “반복할 수 없나. 내 생각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낳았어요(웃음) 근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초반에 알려주더라고요. 딸이라고(웃음) 근데 저는 아들 갖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셋째 딸이란 얘길 들어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청소기를 밀면서 “딸이네~ 참 웃기네. 하하하”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땐 되게 즐겁게 잘 보냈어요. (3W)

이러한 의도적 노력 등으로 인해 많은 연구 참여자들(21명)의 이상적 자녀수가 다자녀 출산 전 두 명에서 다자녀 출산 후 3명, 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삼남매로 자란 부인이 보기 좋아 다자녀를 선호했다는 한 아버지는 현재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수에 대해 “전 지금도 그냥 다다익선 인거 같은데, 여력만 된다면 (2H)”이라고 답했으며, 전업주부로 두 명의 딸과 막내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이상적 자녀수가 4명으로 변화했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네 명? 딸 둘 아들 둘. 그러니까 여자에도 여자

형제 있고, 남자에도 남자 형제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5W)

위에서 많은 부모들이 셋째 자녀 임신에 대하여 긍정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7명의 참가자(부부 3쌍 포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자녀 혹은 두 명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보다 낫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다자녀 양육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자녀들의 사회성 향상,” “아이들끼리 의지가 됨,” “큰 아이들의 원활한 사춘기 적응에 도움” 등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언급되었다.

우선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사회성인데 사회성은 남들보다 아마 월등하게 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율을 계속 세 명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터울이 또 저희같이 적은 상태에서는 거의 매사에, 모든 문제에 이권이 부딪치거든요. (중략)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회성의 일환이지만 리더십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라든지, 사회에 아이가 진출했을 때 혼자 자란 아이보다는 월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H)

(막내가) 태어나고 나니까는 눈에 보이니까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 왜 아기로 인해서 이제 큰 애가 좀 짜증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왜냐면은 되게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큰애한테. (중략) 아예 동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막 엄마이고 싶은 막 이럴 정도로 케어가 되고 이러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이제 큰애는 좀 유해지는 것 같고. (13W)

다음으로,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 진다”는 정서적인 측면도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며 나타나는 장점으로 보고되었다.

이제 애가 말도 좀 하고 언니들하고 어울려 놓고 그렇게 서로 까불까불하고 잘 지내는 거 보면 아, 셋 낳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중략) 직장이나 이런 외부적인 스트레스, 힘든 일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 와서 자기네

들끼리 놀고 그런걸 보면 기분도 좋고. (3H)

자기네들끼리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큰 애도 너무 애기 예뻐하고 둘째도 동생 예뻐하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1W)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보고한 부모들 중에는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변화를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친구들이) 제가 셋째를 이렇게 늘그막에 다시 양육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 너무 좋고, 좋은 일이 더 많은 거 같아” 이렇게 말해주니까 하나만 키워야지 이랬던 애들이 “아 둘째도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둘째 키우던 애들이 “셋째도 낳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웃음) 해주더라고요. (7W)

2)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향상시키는 맥락들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맥락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다자녀를 선택했거나 셋째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부부(3쌍)의 경우 다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가 높아 다자녀 가족이 됨과 동시에 양육의 장점을 크게 인식할 수 있었다. 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한 후에 셋째를 입양하여 자발적인 다자녀 가족이 된 부부의 경우 셋째 양육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어쨌든 그냥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키운 셋째가 아니고, 저희가 마음에서 결정을 하고 결단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커 가는 모습 자체가 저희한테 더 기쁘고 보람감이죠. (7W)

두 번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하여 “덜 걱정하는” 부모의 태도가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많은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37세의 아버지는 자신을 양육 및 미래 계획에 있어서 “극단적 낙관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

제가 뭐 그렇게 유복한 환경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그런 타입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저는 낙관주의자예요. 예를 들어서

애 하나 정말, 애 하나가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수험도 안 해봤고, 애 셋을 어떻게 기를지에 대한 밑그림도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낙관주의자 인거 같아요, 저는. (2H)

현재 터울이 적은 아들 세 명을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 역시 미래에 아이에게 지출될 금액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다들 뭐, 어르신들은 애들 결혼할 때, 대학교육도 돈들도 사교육도 돈 들고 애들 결혼하면 남자애들이니까 전세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웃음). 만약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애 셋을 못 키우겠죠. 근데 저희는 애들 대학교 가면 “이제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로(웃음) 그런 건 좀 자유롭습니다. (4H)

위의 면접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하여 덜 걱정하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로 일하고 있는 한 아버지는 제한적인 경제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만 좀 부모님이 욕심내지 않을 수 있다면 다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 보다는 이득 보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9H)

셋째, 다자녀 양육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에 속해있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세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켜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자녀 양육의 긍정성을 크게 보고한 부모 중 6쌍이 자녀 양육을 권장하는 교회 공동체, 대안학교 혹은 공동육아 어린이집²⁾ 등에 속해 있으며 주변 부모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설명하였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교회를 지목한 한 아버지는 공동체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이를 셋을 키우지만 옷을 한 번도 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다 돌아가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옷이 다 들고 뭐 장난감도 들고, 이런 공동체는 정말 필요한 거

2)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

같아요. 그래서 뭐...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은 맞고,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다시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그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살피줄 수 있는 공동체성은 회복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6H)

이와 반대로, 전업주부로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 아버지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써 엄마 중심으로 형성된 아이 키우기 문화에 속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키워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게, 엄마들이 교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고, 또 아빠들이 그렇게 말을 잘 하거나 씩씩하거나 엄마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잘 못하거든요. 거의 육아 쪽은 엄마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 엄마들 정보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도 크더라고요. 그걸 파고들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뭘 줘야할지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빠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게.....도저히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1H)

이렇듯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맥락의 제한으로 인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 형성 과정

물론, 다자녀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다자녀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다자녀 양육의 단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육체적 어려움”과 “시간적 제약”이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세 아이 양육과 자신의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서, 할일 있고 밖에도 나가봐야 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러니깐 그런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게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일이 많아지는 것도 조금 힘들긴 하죠. (9W)

이 중 전업주부인 3명의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경우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의 지연을 막연한 어려움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맨날 이렇게 일에, 집안일에 쪼들어서 사는 거는 좀 안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략) 그렇죠.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 일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8W)

육체적, 시간적 제약 외에 빈번하게 보고된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언급되었다(5명: 2쌍). 특히, 교육열에 편승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더욱 크게 관찰되었다. 일례로, 큰 딸과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세 자녀 양육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다음과 같이 교육비 부담과 연관시켰다.

이 교육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해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한 2억, 3억은 쓰는 것 같아요 정말, 클 때까지. (중략) 그게 가장 커요 등록, 교육비. 유모차나 카시트는 한번 사면, 첫째 애 쓰는 엄마나 네 명, 다섯 명 키우는 엄마나 같을 거예요. 한 번 사다 놓으면 계속 쓰니까. 그런데 육아용품들. 분유, 물론 분유는 모유 먹으면 되요. 기저귀 값이야 뭐 금방 뭐 일 년, 이 년... 교육비예요 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비예요. (12W)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생각과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관계는, 앞서 보고한 부모들의 긍정적 인식형성과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는 성향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과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다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담 외에도 다자녀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크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대기업에 다니는 한 아버지는 두 자녀 이하 가족의 모습을 이상적 가족으로 비추는 미디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TV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다자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뭐 혼자 자수성가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다자녀를 갖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때 자연스럽게 보면서 애가 많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대가족 형태도 되게 장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12H)

이러한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참여자 중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어머니(10W)는 자녀들과의 외출을 자제하는 이유로,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서면 “뭔가 대집단이 몰려오는 듯 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더 나아가, “악영향이요. 애가 많으면 저렇게 된다, 애 많으면 좋을 거 없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거 같아요(1H)” 라고 다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자신들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상하는 아버지도 있었다.

2. 다자녀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 형성의 이해

연구 결과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자녀 양육을 하면서 부모가 만들어가는 실제적 양육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면접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타난 부모 양육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화 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역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맥락들과 연관시켜 심도 깊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1) 부부의 다자녀 양육 분담과 변화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양육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재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서 설명한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양육 분담 형태는 “거의 부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와 “남편이 전담”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절반 이상의 부부가 부인이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남편이 참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전통적 양육 분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9쌍). 예를 들어, 아이 출산과 함께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기로 결정했다는 한 부부의 남편은 양육을 부인의 권한이라고 언급하였다.

집사람이 다 하죠, 거의. 저는 그 양육 과정에서 보면, 집사람과 제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같은 생각

을 하고 있다고 해도 행동에 따라서 아이는 헛갈려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양육은 집사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략) 기본 주축에 대한 양육방식은 집사람의 틀대로 따라가되 집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만 가이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5H)

특히, 다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경우는 대부분 남편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쌍). 다시 말해, 부인 한 명에게만 집중되는 역할 부담 및 남편의 자녀 양육 경험 부족이 다자녀 양육을 힘겹게 하여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한 부부는, 부인에게만 집중 되는 양육 부담에 대해 “아빠는 아빠대로 밖에 일을 하니깐, 그냥 나는 내일이 이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내가 이걸 하자.....하고 이렇게 좀 참는 편인 것 같아요(8W).”라며 역할 분담에 대하여 체념하는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 중 대부분이 부인에게 양육의 임무가 집중되는 전통적 역할 분배의 형태를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 수가 세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역할 변동이 관찰되었다(3쌍). 무엇보다도 다자녀를 원치 않았고 과도한 업무 시간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현저히 부족했던 아버지들의 경우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 나름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의 변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딸을 가진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이 주말까지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며 책을 읽어주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부부 모두 보고하였다.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낮 시간에도 전화 한두 통 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해서 애는 잘 갖는지, 데려다 줬는지. 별 일 없었는지 그런 거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첫째 때는 일단 개가 어렸을 때는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집에 따로..... 그건 아닌데 지금은 제가 첫째 학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면 오전시간에 둘째 셋째는 잘 갖는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오후에는 잘 왔는지 한번 전화해 보고..... (3H)

셋을 낳으니까 변화가 시작 되서 남편이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둘째도 읽어주고 셋째도. 둘째가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달라면서 읽어주고, 셋째도 읽어주고. 예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3W)

그동안 자녀 양육 참여가 제한되어 영아 돌봄에 익숙하

지 않은 아버지들은 많은 경우 엄마가 더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첫째나 둘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셋 되면서 썩-꿈 자기도 인제 좀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웃음)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는 조금.. 아빠가 큰 애들을 조금 더 봐주려고 양육을 도와주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그 전 보다는. 막내는 아직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엄마를 지금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깐, 큰 애들을 조금 아빠가 좀 더 케어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8W)

애들이 지금은 첫째하고 둘째 하고 컸으니깐 숙제 봐주고 이런 거, 저도 좀 인제 둘째는 봐주거든요 좀. 하도 힘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둘째는 봐주고 했었거든요. (10H)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반 정도의(7쌍) 부부들은 자녀수 증가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했으며, 다자녀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더욱 커진 경향을 보였다. 이중 3쌍의 부부는 거의 부인과 남편의 참여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남편과 자신의 자녀 양육 역할 분담 비율을 “40:60” 정도라고 밝힌 부부의 아버지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자신의 역할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좀 늘겠죠. 애를 하나 볼 때 보다는 좀 더 힘들니까 뭐 아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중략) 특별히 양육을 분담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 양육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4H)

본 연구에서 자녀 수 증가와 함께 양육 참여를 증가시킨 아버지들 중에는 아버지 역할에 집중하고 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전일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 양육 참여 자체에 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모성애도 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하고 친

짜 초기에,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지지고 묶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생기는 거지 원래부터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엄마는 없는 거 같아요. (6H)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아버지의 참여가 괄목하게 증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양육 분담에 대하여 느끼는 부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양육에 대하여 “모든 것이 좋다”며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업 특성상 거의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만족은 못하죠. 하나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서는 정도로 해야 되죠. 여유 있게 변할 땐 충분히 안 그럴 수 있겠다는 희망? 왜냐면 밖에 나가 놀러갔을 때 놀아주는 거 보면 잘 놀아주는는 하나까. 그리고 음식을 할 때도 같이 와서 해주려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딸이 뭘.. 물어봤을 때 그런 걸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던가. 내가 아빠한테 가서 해봐, 그러면 뭘 찾아봐주고 해준다던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3W)

아빠의 역할을 주로 “놀아주는” 역할로 규정지은 한 어머니의 경우도 남편의 제한된 참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사실 더 해주면 좋겠죠. 근데 남편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적절, 적절하다고 봐야할 거 같아요. 적절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더 많이 해주고 있거나. (7W)

위의 경우들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삶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양육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며,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해 아버지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양육 의지”나 “나름의 노력”으로 인해 부인이 역할 분담에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 참여자 중 남편의 양육 참여가 부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부인이 남편의 양육자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 사례(negative case)가 관찰되었다(1H,1W). 둘째 출산 직후부터 부인이 전일제로 일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부는 서로의 역할분담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아빠로써 “재정적인 몫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과 부인이 “양육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아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부인 역시 남성들의 양육 능력에 불만을 표하며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거의 없다고 답하였다.

DNA 상에 사람을 보살핀다는 게 DNA 구조 상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건 나를 잊고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건데 언제나 자기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애를 보는데 딱 짓을 계속하면서 애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는 질... 같이 있는 시간이 분명히 많은 것은 같으나 그 보고 있는 동안 아이와 지내는 그 질적인 부분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내가 본다면 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으나, 아 저 사람보다는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1W)

다시 말해, 부인이 느끼기에 자신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정답” (남편이 돈을 벌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2) 자녀양육 역할 구성에 관련된 맥락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자녀 양육 역할 구성에 있어서 그들이 경험하는 여러 맥락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역할 구성은 남편과 부인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직업적 상황의 경우 부인의 휴직과 복직에 의한 변화가 3쌍의 부부에게서 보고되었다. 현재 부인이 육아휴직 중인 두 쌍의 부부는 남편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양육 분담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인의 육아휴직 전에 상당한 수준의 가사 및 양육 역할 분담을 하던 한 아버지는 현재는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분담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 이제는 맞벌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가 다 볼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래도 집어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이상적인 엄마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이상적인 엄마에 가까운 거 같아요. (11H)

이와는 반대로 부인의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해 남편의

가사 및 양육 참여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제 역할이 조금 늘어난 것은 애가 늘수록 물리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다시 복직을 한 게,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등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사실 여기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해야 될 일만 있을 뿐이고 더 효율적인 분업 방법은 있을 수 있겠는데. (중략) 근데 확실히 이제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준다는 말, 그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누가 누굴 도와 주냐, 그런데 그건 맞는 거 같아요. 그냥 해야 할 것이 전에는 영역이 달랐다면 지금은 동등하니까. (2H)

위의 남편의 경우 부인의 복직으로 인해 역할이 “동등해 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복직 후 양육 역할 분담 형태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 모두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직업적 상황은 부인의 직업적 상황보다 더욱 밀접하게 자녀 양육 역할 구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가 생기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외국계 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는 한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일에서 비취지는 아버지의 역할은 “돈 벌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회사는) 아빠 입장에선 절대 도움이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 벌어다주는 회사지, 아빠가 사회, 국가에서 애를 위해서 해 주는 건 돈 벌어 주는 거 외에 뭘까 라는 생각은 많죠. 시간을 못 내요. 시간을 못 내고, 아빠가 그걸 위해서 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구조고. 그거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걸 돈으로 보상하려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들이 또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들한테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부모와의 관계성을 개선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죠. (7H)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 5명은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 양육 참여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휴일 없이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있어 자신을 “투명 인간”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냥 바쁘고. 며칠 전에는 머슴애(아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명인간 같다, 우리 아빠.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12H)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 이러한 남편의 제한적인 참여를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자녀 양육을 자신이 전담해야하는 몫으로 여기고 있었다.

직장이야 우리 신랑이 선택한 직장이고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니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쉽고. 그것 빼고는 저는 다. 이제 생활에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직장 관두게 하고 다른 일을 서로 하고 그럴까 하다가, 요새 이게 경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응하고 살아요. (12W)

저는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양육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면 고맙지만 나름대로 사회에서도,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집에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내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저는 제가 그러면서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8W)

하지만, 남편의 총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 시간이 융통적일 경우에는 다자녀 양육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자유직, 전문직 및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5명의 아버지들은 전일제 회사원에 비해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었고, 따라서 부인과 서로 스케줄을 조율하며 효율적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한 아버지는 주말까지 근무해야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자신의 직업이 양육 참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 평일 같은 때는 나오질 못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지금도 큰 애가 학원 갔다가 아빠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태권도를 가고, 뭐 피아노 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을 이제 잠깐 잠깐 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평일인데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13H)

남편과 부인의 직업적 상황에 따른 영향 외에도 두 명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양육 참여 수준을 비교하고 자극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교사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한 아버지의 경우 셋 째 출산 이후에 참여가 약간 증가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하느냐? 애기 하면은 어 그래? 또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해야겠구나... (10H)

남편의 바쁜 직장 때문에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아빠들의 양육 참여 문화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예전에는)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저녁에 영화를 본 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아빠가 이해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활동(행사)을 다하고 밥도 다 먹이고 아빠들이 다 애를 데리고 가요, 각자 집으로. 그리고 아빠들이 애를 재우는 거예요. (중략) 처음에는 애가 좀 어리잖아요.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계속 전화하고, 밥도 다 먹었는데 왜, 그니까 잠도 항상 제가 재우니까 아이들은 저를 찾는 거죠. 애가 울면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번 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아이가 당연히 아빤데, 아빠를 더 재밌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3W)

비록 두 쌍의 부부만이 주변의 영향을 보고하였지만, 이는 부인에게 양육 책임이 전담되어 있는 부부의 경우에 그들의 사회적인 맥락이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3. 은유적 그림을 통해 살펴본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역할 구성의 연관성

본 연구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설명된 부부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자녀 양육 역할 구성 간의 관계 및 관련 맥락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는 은유적 그림으로 요약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살린 은유로 끊임없이 조금씩 자라거나 시들어가는 “나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 개념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Figure 1.>.

아래 은유적 나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은 나무의 핵심인 기둥에 해당한다(①).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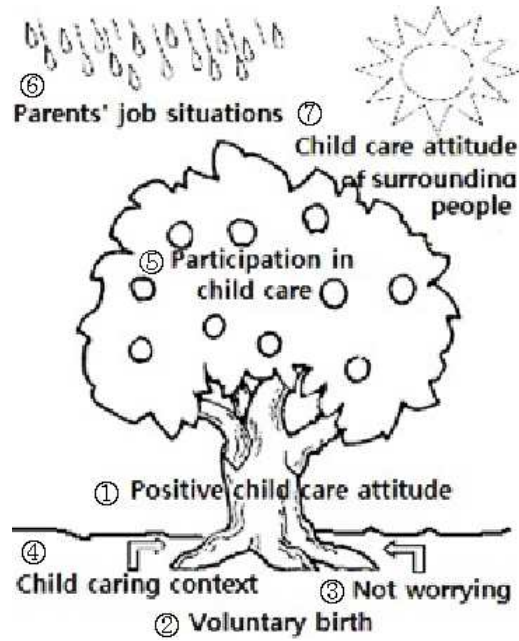


Figure 1. Metaphoric explanation of key concepts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형성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셋째 자녀의 자발적 출산이라는 근본적인 출발점(토양: ②) 위에서 더욱 잘 자라나며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 자녀 양육을 선택한 경우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의 성적이나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 및 아이를 함께 키우는 주변의 문화가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인식을 키우는 자양분(③, ④)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양육 역할 구성은 인식의 측면이 아닌 행동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무의 열매를 은유로 사용하였다(⑤). 즉, 긍정적 인식이 튼튼하게 형성된 기반 위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보다 성 평등적인 자녀 양육 참여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참여를 원활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맥락적 요인으로서의 직업적 상황(⑥)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양육에 대한 태도(⑦)가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본 은유적 그림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보다 풍성하게 맺도록 도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비와 해를 사용하여 관련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각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저출산 가족이 아닌 세 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을 둘러싼 경험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C. Lim, 2011; S. Moon et al., 2007)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셋째 자녀를 계획 하에 출산하지 않았으며, 다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놀람, 당황스러움 등을 경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자녀 양육의 장점으로 아동의 사회성 증진이나 정서적 행복 등이 언급되었고,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보고된 점 역시 지금까지의 부모 역할이나 고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H. Lee, 2011; C. Lim, 2011; S. Sohn, 2005)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출산 부모들이 다자녀 양육의 장점을 비교적 크게 인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 Bang, 2014; S. Moon et al., 2007)도 본 연구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다자녀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모들이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맥락이나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중 기

존에 거의 언급되지 않던 입장을 비롯한 다자녀 양육의 자발성이 세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 외에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덜 걱정하는 부모의 태도가 다자녀 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주요하게 관련된다고 보고되었으며, 반대로 사교육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걱정이 다자녀 양육을 권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를 구성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은 결혼 전부터 육아를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S. Sohn & E. Kim, 2010), 특히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예상하는 것으로 보고된다(J. Chang, 2005; M. Um & H. Kim, 2011). 자녀에 대해 덜 걱정하는 태도가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가 출산 이전부터 혹은 결혼 전부터 양육을 어렵게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출산에 대한 기대 및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도(E. Bang, 2014; Y. Lee & K. Lee, 2012)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행복과 축복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은 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저출산·고령화정책의 예산의 62%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에 집중되었으며, 일·가족 양립을 비롯한 사회 문화 조성 등에는 매우 적은 예산만이 투입되었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7). 더욱 최근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즉 무상보육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대리양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부모의 자녀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책적 방향이 보육과 관련된 단기적 효과로서의 금전적인 제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에 장기적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혜택에서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사회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에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 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O. Sullivan, et. al., 2014)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부 관계를 다룬 여러 선행 연구들은 남성의 양육 참여 정도가 부인의 결혼 만족도를 비롯한 가족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A. M. Galovan, E. K. Holmes, D. G. Schramm. & T. R. Lee, 2014; Y. Son & K. Yoon, 2011). 따라서 남성들의 양육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 줌과 더불어 의식적, 교육 및 캠페인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젊은 아버지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양육자 역할 모델이 생기고 자녀 양육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단체나 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남성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아버지 학교나 부모학교는 주로 민간 차원에서 제한적인 집단군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 남성 대상 교육이 시·군·구 건강지원센터의 공동 사업으로 지정되어 센터 당 연간 20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회사나 기관 차원에서 신청한 소수의 아버지만이 교육을 경험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아버지의 역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 남편과 부인의 직업적 상황이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참여를 높이거나 제한시키는 중요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이 직장에 다닐 경우 남편의 참여는 높아졌지만, 참여가 높았던 남편이라 하더라도 부인의 휴직과 함께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서며 자녀 양육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취업모의 남편은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양육 참여 수준이 높았지만, 부인이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남편과 양육 참여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J. Choi & S. Lee, 2015). 이전까지 남편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인의 직업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4%(Statistics Korea, 201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본 연구와 J. Choi와 S. Lee(20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직업적 상황은 부부의 양육 역할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점차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 등

직업적 맥락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질적연구 방법에 기초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증가 및 감소를 척도화 하지 않고 참여하는 내용과 그 내면을 살펴본 결과, 부인의 휴직과 복직, 경력단절(퇴직), 재취업 준비 등 다양한 직업 상황 속에서 세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증가나 감소일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태도, 만족도 측면의 명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부부의 다자녀 양육 역할과 관련된 남편의 직업상황은 주로 일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경우 자녀양육 참여가 제한되고, 시간 사용이 융통적인 경우에는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Y. Kwon, 2009)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2,092 시간으로 가장 긴 우리나라의 경우(OECD, 2013), 남성이 일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시키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남편 직업의 시간적 융통성이 자녀 양육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양립 정책 중 융통성 있는 시간 사용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일-가족 양립 정책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W. Sun, H. Kim, D. Kim, S. Oh, & S. Ahn, 2012). 하지만, 남성들은 거의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Y. Kwon, 2009), 궁극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제도의 도입 못지않게 성에 따른 정책사용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편과 부인의 직업에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다른 부부와 매우 차별적인 패턴을 보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남편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부인이 전일제로 일하면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이들은 다자녀 양육 인식이나 역할에 있어서도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남편의 양육 시간이 매우 길고 양육 참여 수준이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의 역할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남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남편 역시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이 부부의 상황은 맞벌이일지라도 남편이 주 생계담당자로 여겨지고 부인이 양육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

을 담당하기를 요구받는 전통적 틀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도 해석된다. 부인의 경우 자신의 엄마로서의 자아에 위협이 될 만큼의 남편 참여를 불편하게 생각하며 남편의 양육 참여의 통로를 막는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S. M. Allen, & A. J. Hawkins, 1999; J. Fagan, & M. Barnett, 2003; O. Hauser, 2012)가 이 부부의 태도에 적용된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부부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양육 참여에 관련된 맥락으로 양육에 지지적인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주변에 아이 양육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것과 실제 양육 참여 행동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빠른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즉각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 양육에 지지적인 주변 사람들, 단체 등을 만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장기적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지지적인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http://www.seoulmaeul.org>). 본 사업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을”을 구성하여 육아, 먹거리, 여가 등에 관한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교육, 상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전업모를 중심으로 사교육 정보를 비롯한 정보 교환을 위해 형성되는 모임과는 다른,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맥락을 구성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지지적인 환경에서 다자녀 양육에 대한 자발성 및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보다 성평등적인 양육 참여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여러 정의에 근거하여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부만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네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울 경우 부부의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및 양육 행동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세 자녀 뿐 아니라 네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부부만을 포함 시켰다. 하지만,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제한을 들었으며,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긍정적 다자녀 양육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볼 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소득 계층의 고출산 가족을 연구에 포함 시킬 필요성이 제기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한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얻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아이와의 생활 및 보다 다자녀를 키우는 생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부 면접, 가정 관찰, 자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면접 외에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의 병행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다자녀 출산의 동기 및 다자녀 양육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다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 역할이 형성되는지를 주변 맥락과 함께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시도하였다. 특히, 다자녀 출산을 방해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자발성 및 긍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 어머니들의 인식에 집중하던 기존의 연구 틀(C. Lim, 2011; S. Moon et al., 2007; J. Yum et al., 2013)에서 벗어나 아버지들을 연구에 포함 시키고 다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아버지들의 다양한 생각 및 그들의 양육자 역할 및 아버지 참여에 대한 부인의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고출산 부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Bang, E. R.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lan: Based on data from parents with 3 or more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7(1), 53-74.
- Berninger, I., Weiß, B., & Wagner, M. (2011). On the links between employment, partnership quality, and the intention to have a first child: the case of West Germany. *Demographic Research*, 24(24), 579-610.
- Chang, H. K. (2007). Low childbirth and family polic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21(1), 91-106.
- Chang, J. K. (2005). A primary study on preference of fertility policies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marriage and having child.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11), 165-183.
- Cho, H. J., & Bang, H. J. (2005). A reason of Korean women's avoidance tendency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Gender 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1), 95-112.
- Cho, M. D. (2010).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6(1), 1-31.
- Cho, N. H. (1997). *The 1997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J. E., & Lee, S. H. (2015). Psychological salience of father status and paternal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Moderating effects of provider role attitudes and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 91-116.
- Chung, S. H. (2009).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161-183.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Publications.
- Daly, K. J. (2007). *Qualitative methods for family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CA: Sage Publications.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Hauser, O. (2012). Pushing daddy away? A qualitative study of maternal gatekeeping. *Qualitative Sociology Review*, 8(1), 34-59.
- Galovan, A. M., Holmes, E. K., Schramm, D. G., & Lee, T. R. (2014). Father involvement, father - 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work actor and partner influence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35(13), 1846-1867.
- Giorgi, A., & Giorgi, B. (2008). Phenomenology. In J. A. Smith (Eds.),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s* (pp. 26-52). London: Sage.
- Joo, H. J., Gwak, K. H., & Cho, J. Y. (2010). Effects of socio-economic and policy factor on the intention of childbirth.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4(4), 211-228.
- Kim, I. J. (2011). *Exploration of mother's discipline-experiences based on symbolic interaction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J., & Kim, Y. M. (2008).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nfluences on father's parenting efficacy with general characteristic of one's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4(1) 269-287.
-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M. Y., & Song, Y. S.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03-311.
- Kim, S. G., Kim, Y. K., Kim, H. R., Park J. S., Son, C. G., Choi, Y. J., Kim. Y. W., Lee, G. E., & Yoon, A. R. (2012).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H. (2009).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 fertility. *Social Welfare Policy*, 36(2), 113-137.
- Kim, S. R. (2013. 4. 11.). 3 hundred million for rearing 1 child until college graduation. Seoul Journal, p. 11.
- Kim, T. H. (2005).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welfare Policy Forum*, 102(1), 16-24.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 Kwon, H. J., Kim, Y. J., Kwon, S. J., Park, S. A., Ahn, Y. M., Oh, G. S., & Lee, K. S. (201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175-200.
- Kwon, Y.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and paternal involvement. *Family and Culture*, 21(1), 1-28.
- Kwon, Y. (2013). Ecological examination of single men and women's future fertility behavior in relations with their family values, recognized fertility policies and perceived economic condi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1), 75-92.
- Kwon, Y. I., & Roy, K. M. (2007). Changing social expectations for work and family involvement among Korean fa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8(2), 85-305
- Kwon, Y. I. (2014). Understanding expected number of children of childless married and single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251-268.
- LaRossa, R., & Reitzes, D. C. (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2), 455.
- Lee, H. K. (2011). Maternal nurturing experience from a household of three or more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6), 377-406.
- Lee, K. S., Jung, S. J., Park, J. A., & Shin, Y. J. (2009). A study o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1), 93-108.
- Lee, M. R. (2010).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married women upon value on children and upon childbirth behavio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1), 99-121.
- Lee, S. S. (2006). A study of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40.
- Lee, S. Y. (2006). Economic crisis and the lowest-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3),

- 111-137.
- Lee, Y. J., & Kim, J. I. (2009). Birth assistance program recognition & occupation sensitive birth assistance programs for working women. *Journal of Social Science*, 35(1), 61-90.
- Lee, Y. S., & Lee, K. Y. (2012). The directions of family welfare practice service in coping with low ferti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8(1), 139-167.
- Lim, C. H. (2011). A study of multi-child families' perceptions of family strength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1), 19-64.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Marsiglio, W. (1993). Contemporary scholarship on fatherhood culture, identity, and conduct. *Journal of Family Issues*, 14(4), 484-509.
-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 (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 Mertens, D. M. (1998).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tegrating diversity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pp. 159-190). Thousand Oaks, CA: Sag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birth trends*.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oon, S. J., Yang, J. S., & Lee, S. E. (2007). A qualitative study on multi-child famili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43-57.
- Na, Y. M., & Kim, M. K. (2010). Approaches to studying low birth rate in Korea: A critical review.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5), 817-833.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7). *Governmental evalu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Seoul: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OECD. (2013). *Average annual working time hours per worker*.
- Oh, C. S., & Choi, S. H. (2012). The empirical study on the cause of low fertility - Factors to impact on falling of nuptiality and rising of age at first marriag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2(1), 91-125.
- Oh, Y. J., & Park, S. J. (2008). An economic analysis of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15(1), 91-102.
- Park, J. & Kwon, Y. (2009). Parental goals and parenting practices of upper-middle class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1), 58-75.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
- Shin, H. Y., & Bang, E. R. (2009). Individual values on giving 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0), 123-136.
- Sohn, S. Y.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Family and Culture*, 17(2), 285-316.
- Sohn, S. Y., & Kim, E. J. (2010).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Hyonsang-gwa-Insik*, 34(4), 169-200.
- Son, Y., & Yoon, K. (2011). The effects of fathers' role perceptio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gives o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8(3), 105-126.
- Song, Y. M., & Lee, J. S. (2011).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1), 27-61.
- Statistics Korea. (2014). *Population trend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 Sullivan, O., Billari, F. C., & Altintas, E. (2014). Fathers' changing contributions to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in very low - fertility countries: The effect of edu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48-1065.
- Sun, W., Kim, H., Kim, D., Oh, S., & Ahn, S. (2012). *Evaluation of 2011 low fertility-aging policy*. Sejong: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aylor, S. J., & Bogdan, R. (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earch for meanings*. New York: Wiley.
- Um, M. Y., & Kim, H. S.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

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3), 179-209.

Yasumoto, S., & LaRossa, R. (2010). The culture of fatherhood in Japanese comic strips: A 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4), 611-627.

Yoo, G. S. (2009).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s in 2007.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169-189.

Yum, J. H., Chung, S. E., & Joo, Y. S. (2013). Family planning experience and service needs among families with three children: using a mixed method approac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35-77.

Received: June 12. 2015

Revised: July 7. 2015

Accepted: July 25. 2015